

케이스탯

2022년 11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1%, 최고치 경신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7%, 상승세 지속
- _ 정부 신뢰도 : ‘불신’ 75%, 4개월 연속 70%대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불만족’ 80%, 2개월 연속 80%대
- _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26%, 4%p 상승
- _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73%, 3%p 상승
- _ 부동산 가격 전망 : ‘내릴 것’ 50%, 조사 이래 최고치
- _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47%, 3%p 하락
- _ 자기 삶 평가 : ‘고군분투’ 62%, ‘고통’ 27%, ‘번창’ 10%

■ 11월 특별지표 : 국민의 ‘불안 의식’ 진단

- _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불안하다’ 69%
- _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75%로 가장 높아
- _ 불안감,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아
- _ 불안감 높은 지역, 경가인천과 TK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11월 4일(금) ~ 11월 6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2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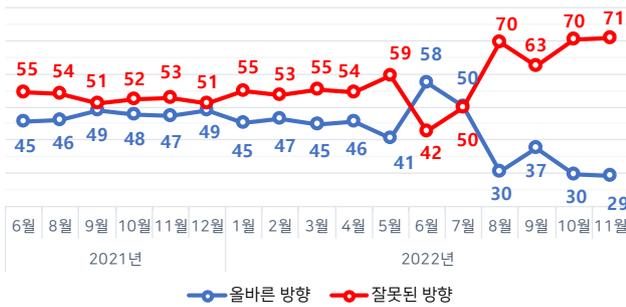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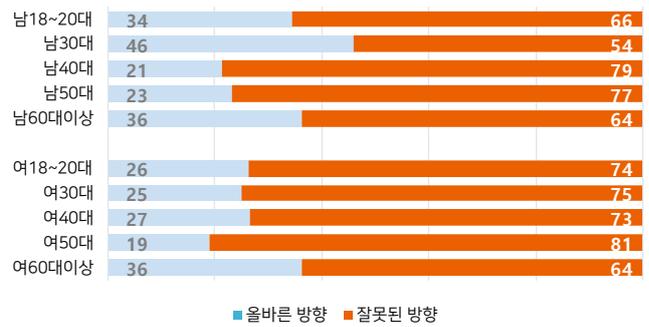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1%, 최고치 경신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잘못된 방향' 응답이 71%를 기록하며, 조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함
 - 2022년 11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29% vs '잘못된 방향' 71%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4050세대 △여자 50대 △진보층 △은퇴·무직자 등에서 높았음
-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TK, PK △보수층 △학생 △사회이익 중시층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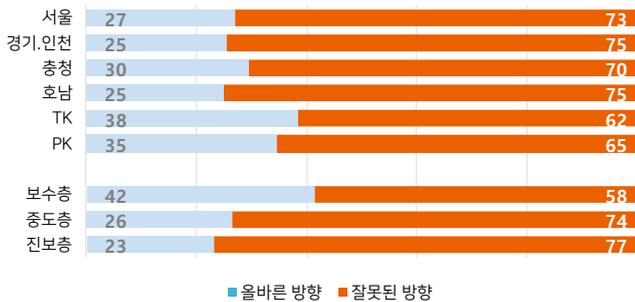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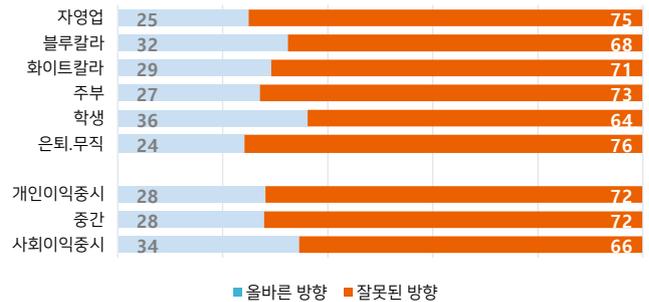
2022년 1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단위:%)



2022년 1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1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1.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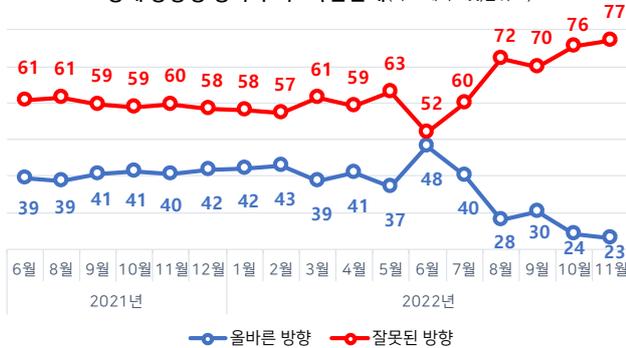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10명 중 7명은 '대한민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민 사이 부정적인 정서가 팽배함
 - : 대한민국의 전반적 방향성에 관한 평가를 가능할 수 있는 척도로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는데, 국민 10명 중 2~3명 정도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 (NBS)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 10월 1주 29%, 10월 3주 31%, 11월 1주 31%
 - :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추이 : 10월 1주 29%, 10월 3주 27%, 11월 1주 29%, 11월 2주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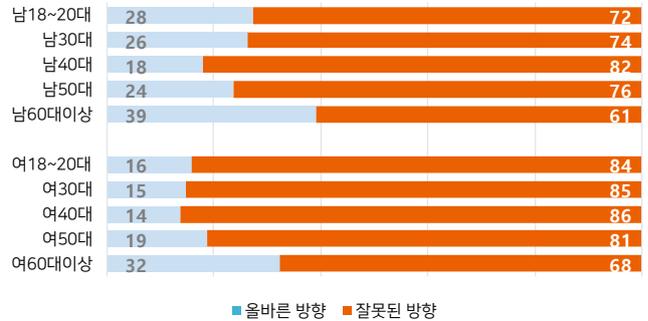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7%, 상승세 지속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임
 - 11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23%, '잘못된 방향' 77%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2050세대 △서울 △진보층 등임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TK △보수층 △학생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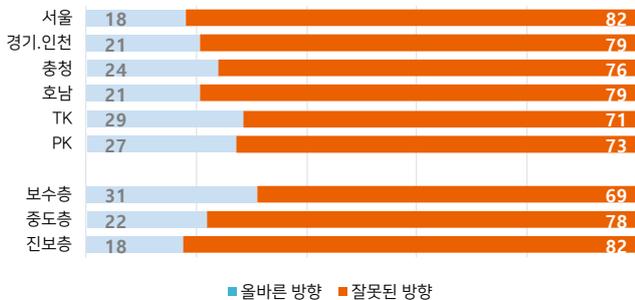


2022년 11월 경제 방향성 평가: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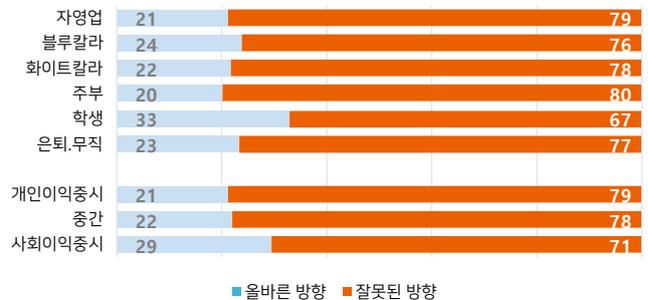
2022년 11월 경제 방향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2022년 11월 경제 방향성 평가: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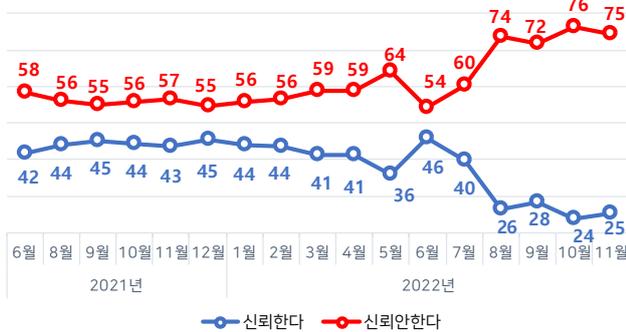
Kstat Point

- ☑ 경기둔화 가능성이 가시화하며,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강화됨
 - : 지난 8월 이후 KDI의 월간 '경제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8월 '완만한 경기회복세' → 9월·10월 '경기회복세 약화' → 11월 '성장세 약화'로 이어지며, 경기 진단이 점차 어두워지고 있음
 - : 또한, 최근 주요 경제기관들이 내년에 1%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경기침체를 예증함
 - :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8%, 한국경제연구원 1.9%, 한국금융연구원 1.7%, KDI 1.8%
- ☑ 글로벌 경기 침체,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긴축 기조,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현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경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존재함
 - : 경제가 회복되기는 커녕 악화하고 있는 현재,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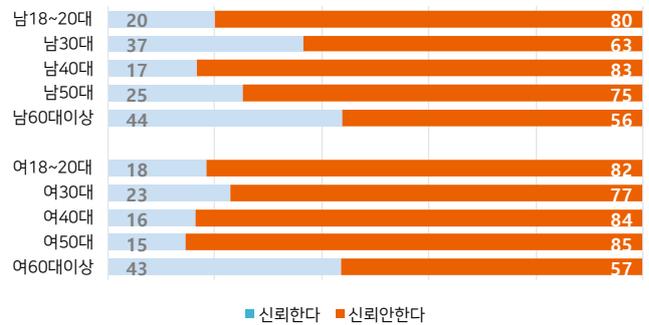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불신' 75%, 4개월 연속 70%대

-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로, 4개월 연속 70% 선에 머물러 있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18~20대, 40대 △여자 18~20대, 4050세대 △호남 △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두드러짐
- '신뢰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충청 △보수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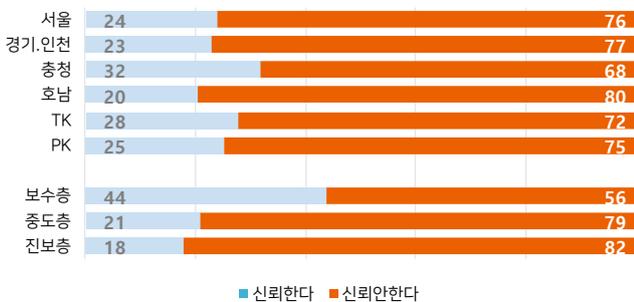


2022년 11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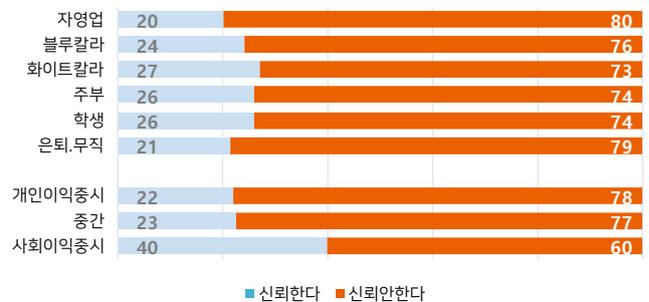
2022년 11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2022년 11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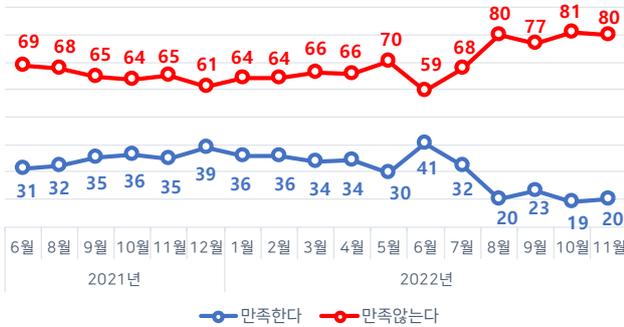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신뢰도가 최근 4개월 연속 25% 안팎의 박스권에 갇혀 있음
- ☑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 철학·비전 부재', '대통령실·내각 인사 관련 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청와대 개방 관련 잡음', '정책 혼선', '여권 내홍', '해외 순방 성과 및 발언 관련 논란'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음
- ☑ 이러한 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60대 이상, TK, 보수층 등에서도 신뢰도가 출렁이는 양상을 나타냄
 - : 남자 60대 이상(7~11월 변동 폭, -1%p → -22%p → +6%p → -4%p → +5%p),
 - : 여자 60대 이상(-8%p → -13%p → +7%p → -10%p → +8%p),
 - : TK(+3%p → -17%p → +2%p → -6%p → -1%p),
 - : 보수층(-8%p → -10%p → +2%p → -4%p → +3%p)
- ☑ 지난 9일, 대통령실은 지난 6개월 동안 부족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비전을 제시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점을 강조했다는데, 향후 국민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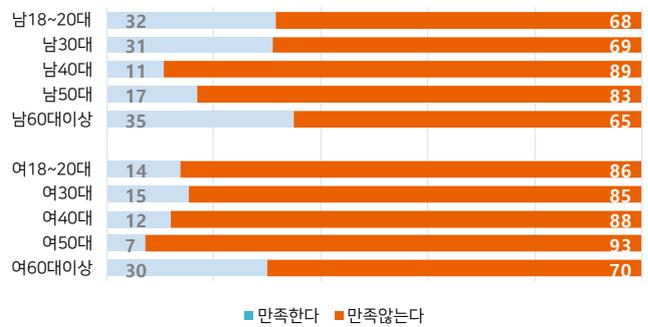
□ 정부 정책 만족도 : '불만족' 80%, 2개월 연속 80%대

-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20%, '만족 않는다'는 응답은 80%로, 지난 10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전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하며, 특히 △남자 40대 △여자 2050세대 △호남 △중도층, 진보층 △주부 등에서 두드러짐
-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PK △보수층 △학생 △사회이익 중시층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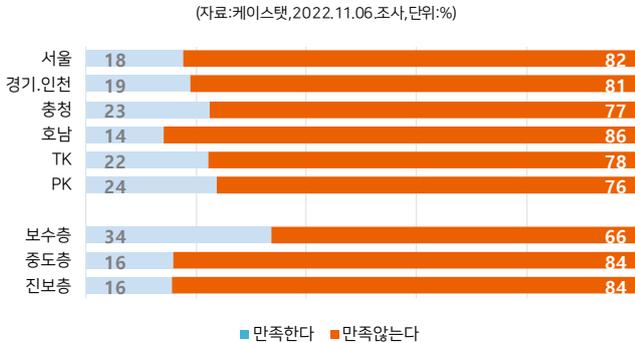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1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1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2022년 11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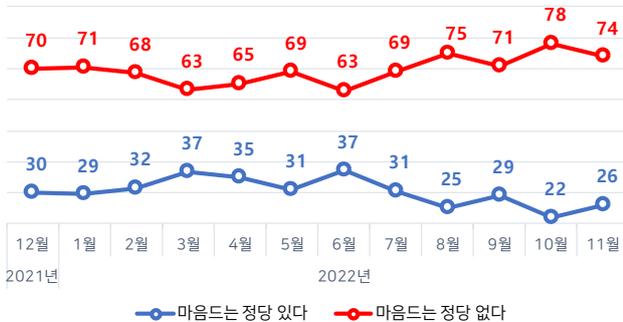
Kstat Point

- ☑ 정책 만족도가 지난 7, 8월 가파르게 하락한 이후 지속해서 20%대에 머물러 있음
: 이는 경제·안보 등 복합적인 위기 국면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국민 삶이 투영된 결과로 보임
- ☑ 주요 분야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특히 국익과 관계된 외교 정책과 국민 삶과 밀접한 경제·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낮음
: 11월 첫 주 한국갤럽 발표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 결과, 긍정률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 43%, '대북 정책' 33%, '부동산' 31%, '복지' 27%, '외교' 25%, '경제' 21%, '공직자 인사' 19%, '교육' 17% 순으로 나타남
: 지난 8월 조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41%, '대북 정책' 34%, '부동산' 30%, '외교' 29%, '복지' 27%, '경제' 24%, '공직자 인사' 16%, '교육' 11% 순이었음 *코로나19 대응은 7월 조사 결과
: 8월에 이어 11월에도 '코로나19 대응', '대북 정책', '부동산 정책' 외에는 모두 20%대 이하의 긍정률을 보였음
: 또한, 8월·11월의 긍정평가 변화 폭을 살펴보면, 교육(+6%p)과 인사(+3%p)는 상승, 경제(-3%p)와 외교(-4%p) 분야는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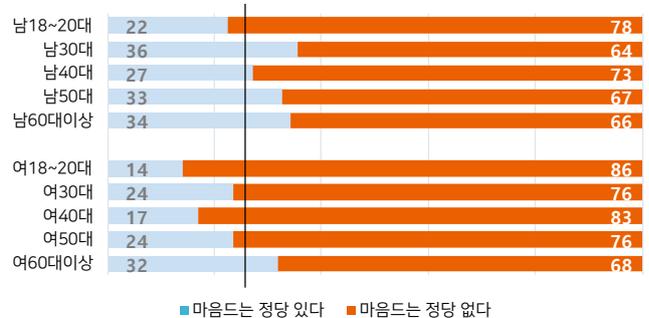
□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26%, 4%p 상승

- 정당 호감도 관련,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4%p 하락하며, 75%를 밑돌음
 - 11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26%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4%
-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18~20대, 40대 △중도층 △학생, 은퇴·무직자 등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5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호남 △보수층, 진보층 △자영업자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정당 호감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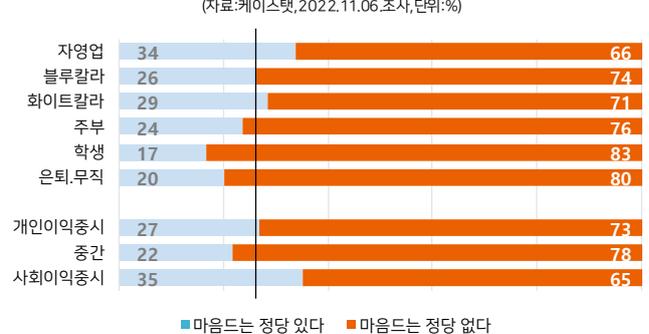
2022년 11월 정당 호감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11월 정당 호감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2022년 11월 정당 호감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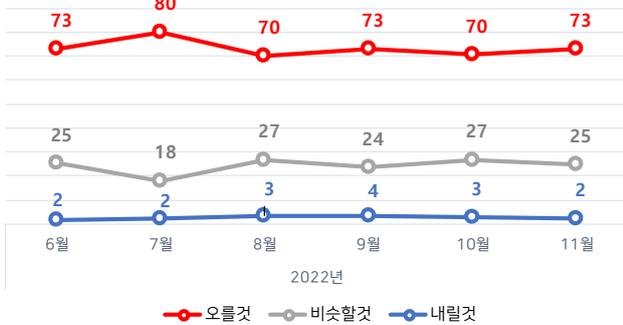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당 호감도가 계층 대부분에서 오르며, 유의미한 상승률(+4%p)을 보임
 - : 남자 30대·50대, 여자 30대·60대 이상, 서울·충청·호남, 주부 등을 중심으로 호감도가 대폭(7%p 이상) 상승함
 - : 민생·정책보다 경쟁 국감으로 평가되는 지난 10월의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정당 호감도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 한편, 국민의힘의 주요 지지층인 TK의 비호감도가 전월 대비 6%p 상승한 점이 눈에 띄음
 - : 국민의힘은 차기 전대를 앞두고 친윤·비윤계로 갈라진 계파 구도 속 '전대 규칙·시기', '당협위원장 인선', '이태원 참사 수습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며,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핵심 지지층인 호남에서 비호감도가 전월 대비 9%p나 하락함
 - : 10월 중하순 이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으로 보임
 - : 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최근 34% 선의 지지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지지율이 증가하는 양상임
 - : (더민주당·호남 지지도) 10월 3주 33%·54%, 4주 35%·59%, 11월 1주 34%·57%, 2주 3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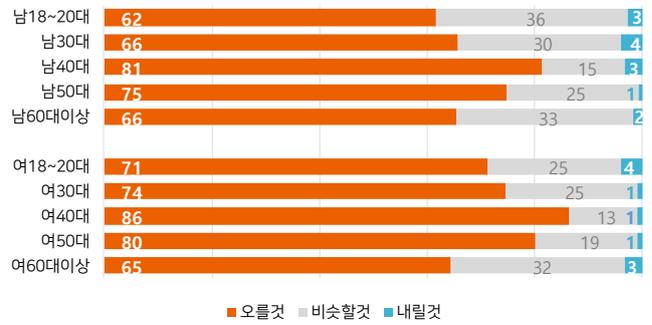
□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73%, 3%p 상승

- 다음 달 물가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은 상승하고, '비슷할 것',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은 하락하며 물가가 더 오를 것에 무게를 둠
 - 11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73%, '지금과 비슷할 것' 25%, '지금보다 떨어질 것' 2%로 나타남
-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40대 △여자 4050세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에서 높았음
- 한편,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국민전체(25%) 보다 높고, 물가상승을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자영업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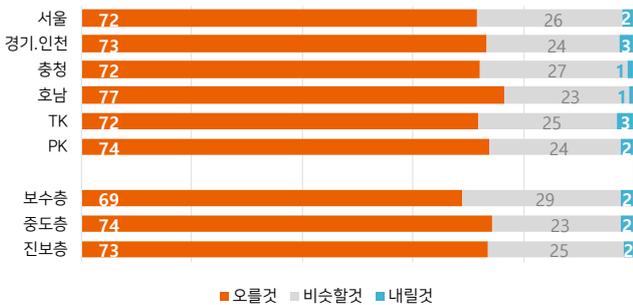
11월 '익월 물가 전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11월 '익월 물가 전망' : 성/연령별 (단위:%)



11월 '익월 물가 전망' : 지역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11월 '익월 물가 전망' : 직업별, 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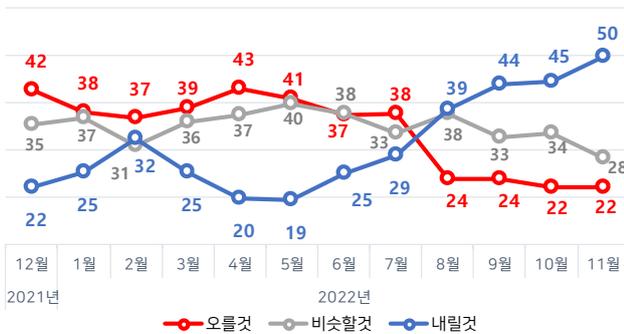
Kstat Point

- ☑ 70%를 웃도는 '물가상승' 전망 여론의 지속은 고물가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가운데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임
 - : 지난 7월 소비자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6.3%)를 달성한 후, 8월(5.7%), 9월(5.6%) 두 달간 상승률이 둔화했으나, 10월에 5.7%를 기록하며 다시 반등함
 -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물가 상승률을 이끈 것으로 분석되는데, 전기·가스·수도가 23.1% 오르면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 고물가 흐름이 지속하고 있는 데다 실제 물가 기조가 안정화되지 않고 있어 물가상승에 대한 국민 전망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0월에 전월 상승률과 같은 6.5%를 기록했으며, 물가상승률(5.7%)을 상회함
 - :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도 4.8%로, 전월(4.5%)보다 큰 상승 폭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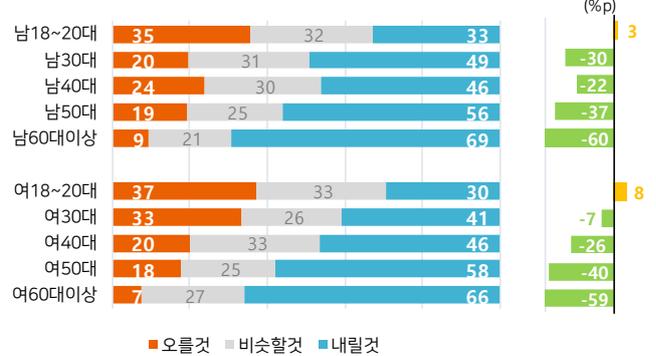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전망 : '내릴 것' 50%, 조사 이래 최고치

-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이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달 조사 이래 최고치 50%를 달성함
 - 11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내릴 것' 50%, '지금과 비슷할 것' 28%, '지금보다 오를 것' 22%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높은 가운데, 특히 △남자 50대 이상 △여자 50대 이상 △서울 △사회이익 중시층 △보수층 △정부 신뢰층 등에서 뚜렷했음
-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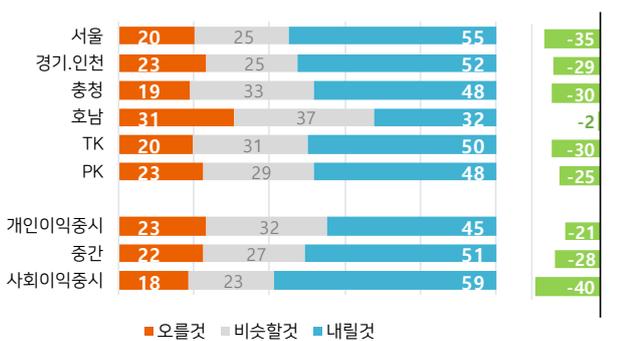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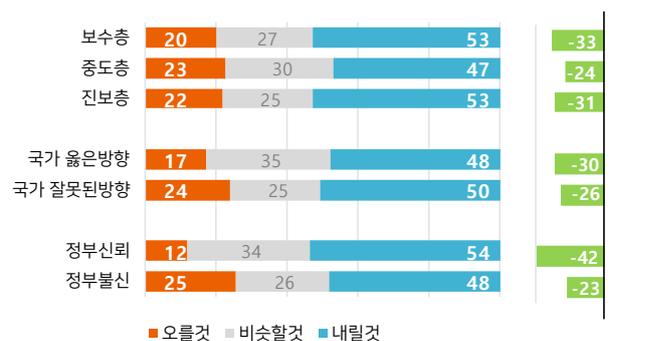
11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성/연령별 (단위:%)



11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지역별,이익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11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이념별 등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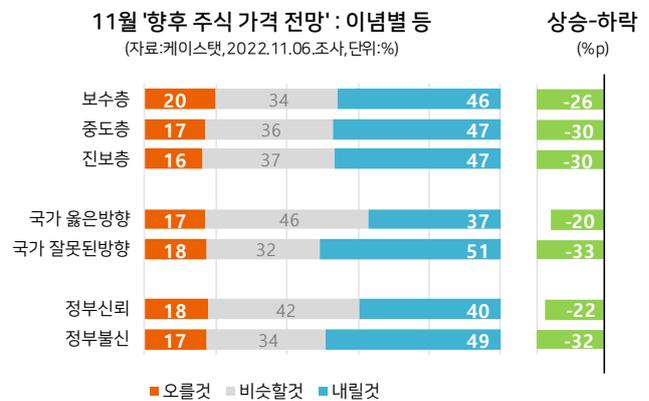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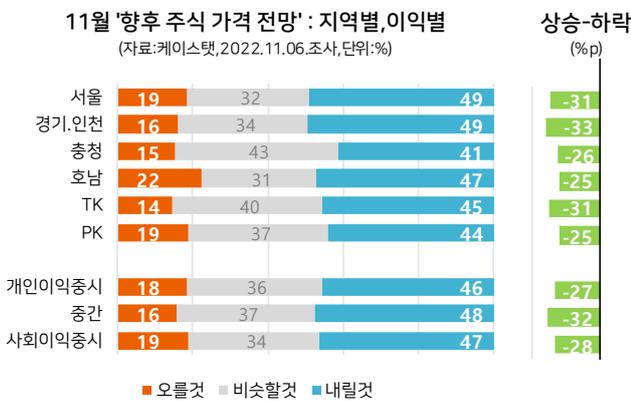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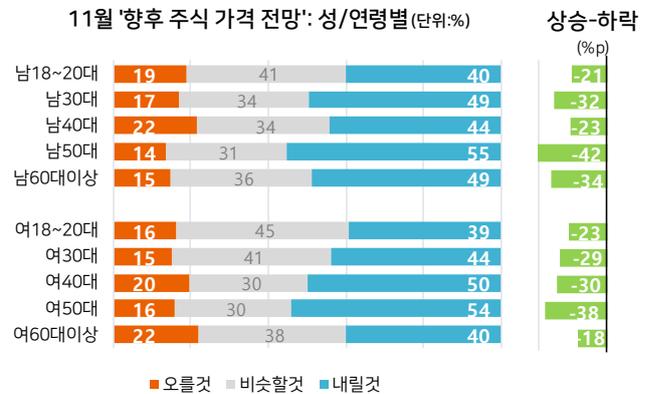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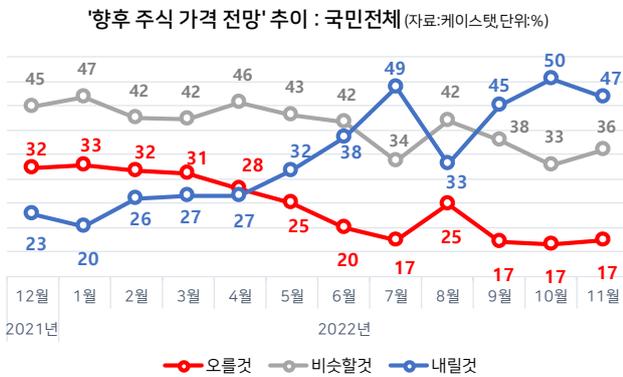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나라 국민 절반가량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한국부동산원 발표 10월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1주(-0.20%) 이후 점진적 하락세를 보였고, 5주에는 -0.32%로 떨어지면서 2012년 5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임
 - : 부동산 매매시장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거래회전율을 보더라도 10월 0.17%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부터 관련 통계를 산정한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임
 - : 이 같은 결과는 지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와 주택값 하락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은 상황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됨
- ☑ 최근 정부는 규제 지역 해제,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단기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47%, 3%p 하락

- 주식 가격 전망 관련,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과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이 각각 3%p씩 하락, 상승하며, 2개월 연속 가파르게 증가한 '주가 하락 전망'이 감소함
 - 11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내릴 것' 47%, '지금과 비슷할 것' 36%, '지금보다 오를 것' 17% 순으로 조사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는 전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가 하락 전망의 우위세가 뚜렷한 가운데, 주가 하락('차이'가 마이너스)을 전망하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대 이상 △여자 50대 등임
- 주가 상승을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60대 이상 △호남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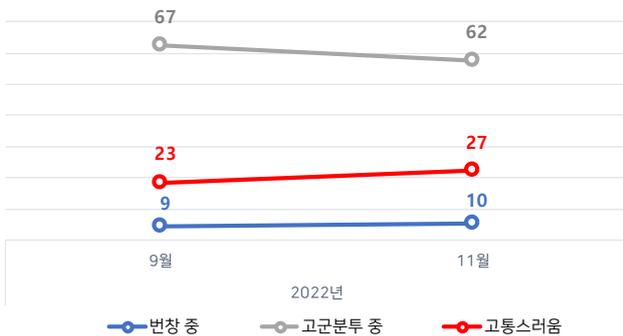
Kstat Point

- ☑ 주가 하락 전망이 소폭 감소하며, 최근 2개월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던 추이가 주춤
- ☑ 11월 코스피 지수를 보면, 1일에는 한 달여 만에 2300선을 회복한 이후 9일(2424.41)에는 2400선을 돌파했음
 - : 이는 최근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바이 코리아' 기조가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결과로, 10월 11일에서 11월 9일 약 한 달 동안 외국인 순매수 금액만 4조 7,045억원에 달했음
 - :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으로 중국 정책 리스크 심화로 인한 '차이나 런', 미국 중간선거 이후 증시 훈풍에 대한 기대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등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을 높였다는 분석임
- ☑ 그러나 여전히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신용경색 등 주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 주식시장 반등 추세로 확정짓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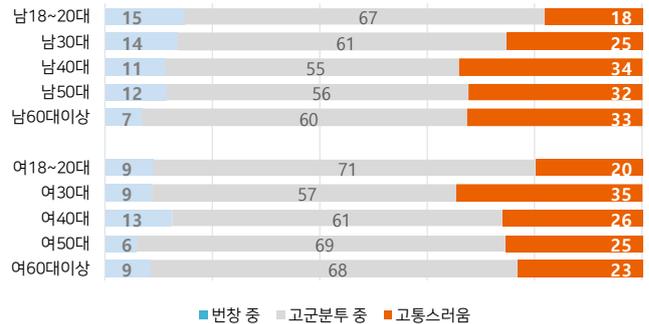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고군분투' 62%, '고통' 27%, '번창' 10%

- 우리 국민들의 '삶 평가 지수'를 유형화해 살펴본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고통스럽다' 응답이 지난 9월 대비 4%p 늘어남
 - 11월 조사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62%, '고통스럽다' 27%, '번창하고 있다' 10% 순으로 나타남
 - ※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최악' 0점 ~ '최고'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3가지로 유형화함
 - ①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미래 8점 이상 ②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3 외 전체 ③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미래 4점 이하
- '삶 평가 지수'의 유형별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고통스럽다'는 유형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대 이상 △여자 30대 △호남 △자영업자, 블루칼라,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임
- '번창하고 있다'는 유형이 더 우세한 계층은 △학생뿐인 가운데, 전체평균(10%)을 웃돌며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계층은 △남자 18~20대 △진보층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이었음

한국민 '삶 평가 지수'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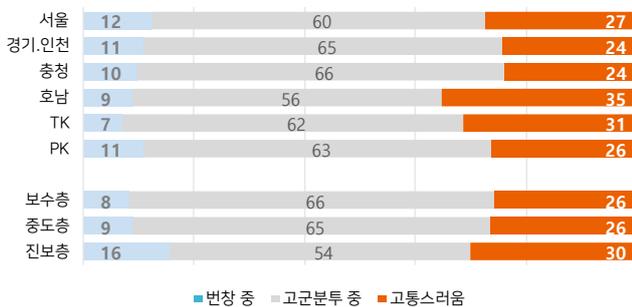


11월 '삶 평가 지수' : 성/연령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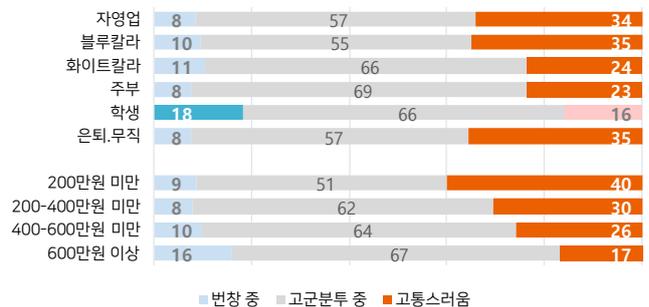
11월 '삶 평가 지수' : 지역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11월 '삶 평가 지수' : 직업별, 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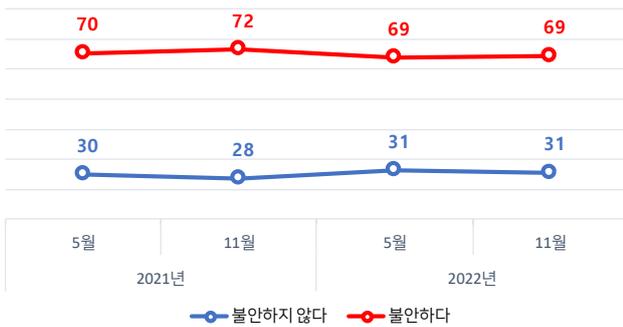
- ☑ 전 국민의 27%가량이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지난 9월보다 증가함
 - : 이는 11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경제 방향성', '정책 만족도'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 9월 이후 하향세를 보이며, 일제히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지점과도 연계해 살펴볼 수 있음
 - : 국민 입장에서 경기침체-민생위기 국면을 극복할 해답을 찾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정부 정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국민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도 어두운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보임

11월 특별지표 : 국민의 '불안 의식'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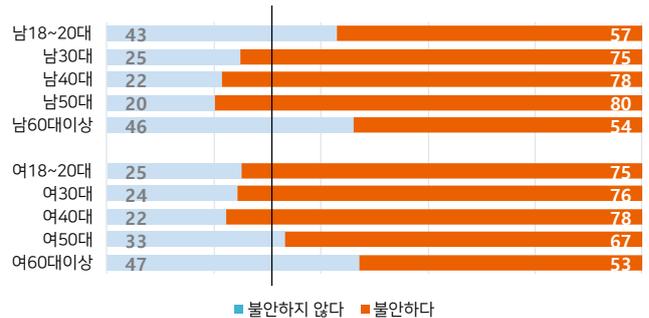
□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여부 : '불안하다' 69%

- 국민 대다수는 평소에 자기 삶과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께서서는 평소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세요?”라는 질문에 ‘불안하지 않다’ 31% vs ‘불안하다’ 69%로 지난 5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특히 △남자 3050세대 △여자 2040세대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높았음
-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서울 △진보층 △주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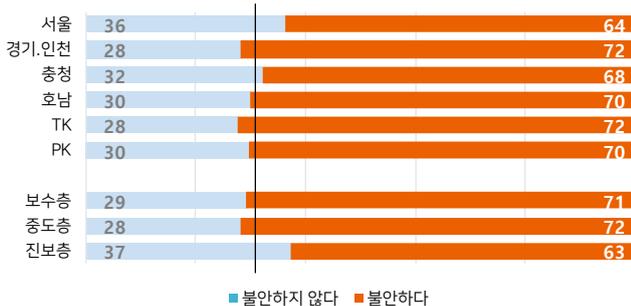
'삶과 미래' 불안 여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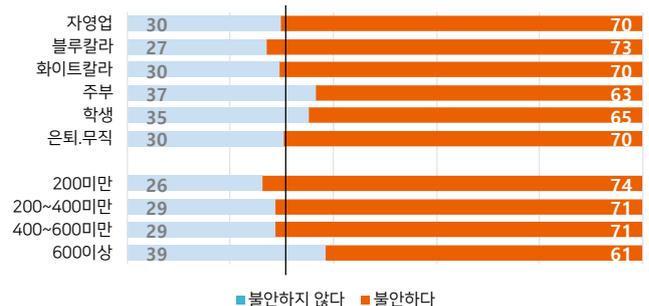
11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성/연령별 (자료:2022.11.06.조사,단위:%)



11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11월 '삶과 미래' 불안 여부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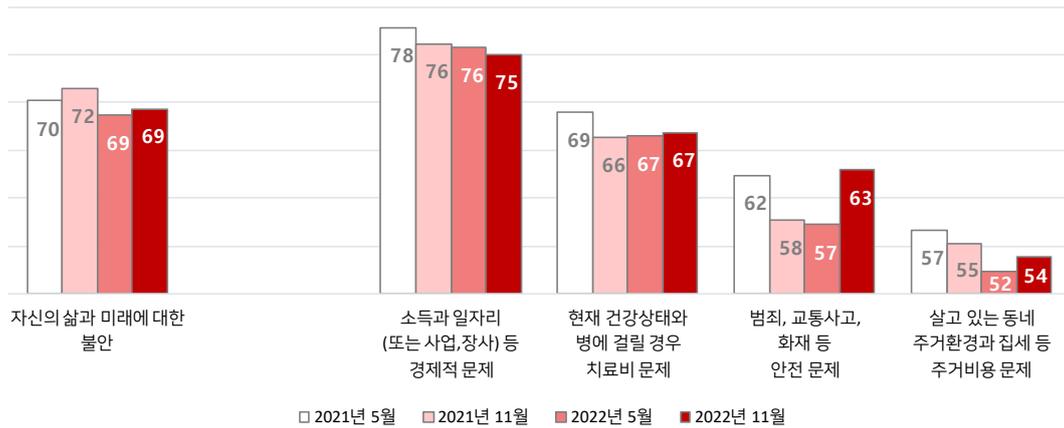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평소에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면서 살고 있음
 - : 작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불안하다'는 응답이 70% 내외에서 큰 변동이 없었음
- ☑ 저소득층일수록 삶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경향 또한 최근 2년에 걸쳐 지속됨
 - : 소득과 삶의 만족감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만큼, 경제적 부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에 대한 안정감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임

□ 영역별 불안감, '경제적 문제' 75%로 가장 높아

- 현대 국가들이 국민 개개인의 영속적인 삶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원 또는 보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삶의 영역은 '경제', '건강', '주거', '안전' 등 4가지 영역임
 - 사람은 자기 삶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 중 일부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불안감'을 느낌
- 4가지 삶의 영역별로 구분해 불안 여부를 질문한 결과,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75%)이 작년 5월 이후 부동의 1위를 기록함
- 다음으로 불안감이 높은 영역은 작년 5월 이후와 동일하게 '현재 건강상태와 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문제'(67%),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 문제'(63%), '살고 있는 동네 주거환경과 집세 등 주거비용 문제'(54%) 등 순으로 나타남
 -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문제' 응답은 작년 11월과 올해 5월 대비 대폭 상승함(각 5%p, 6%p)

'삶과 미래' 불안도 및 영역별 불안도 추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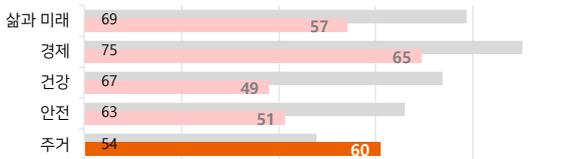
Kstat Point

- ☑ 소득, 자산, 일자리, 임금 등 물질적 조건이 개인의 삶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득과 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상회함
- ☑ 한편, 이번 달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 문제' 관련 불안감이 작년 11월 이후 큰 폭 상승한 점이 주목됨
 - : 이는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을 보여줌
 - : 지난 10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안전 관련 대형 이슈가 다양하게 발생했는데, 15일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 같은 날 SPC 계열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및 SPC그룹에 대한 불매운동 확산, 29일 이태원 참사, 31일 연쇄 성폭행범 출소 등 있음
 - : 이중 가장 최근에 일어났고,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이태원 참사 관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자신도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군중 압착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되십니까?'라는 질문에 '걱정된다' 응답이 73%에 달했음 ※자료 : 한국갤럽

□ 전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 불안감 더 높아

- 전반적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좌측 숫자는 국민전체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주황색 막대, 높으면 짙은 주황색 막대임
- 성/연령별로 영역 전반에 나타난 불안감의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은 40대에서, 여성은 3040세대에서 특히 두드러짐

남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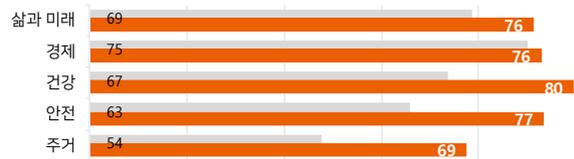
여자 18~2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남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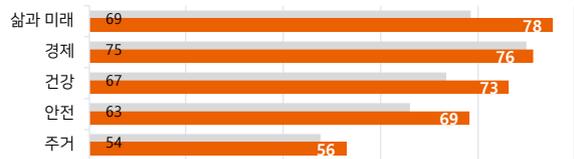
여자 3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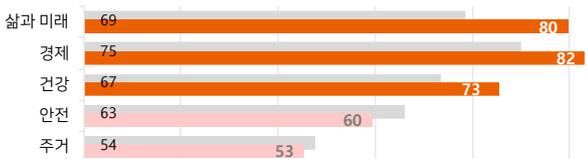
남자 4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여자 4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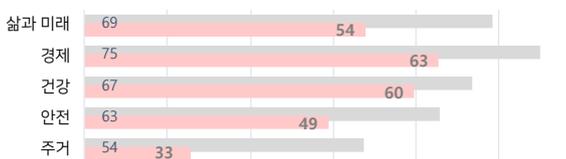
남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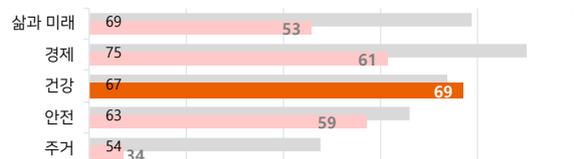
여자 50대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남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여자 60대이상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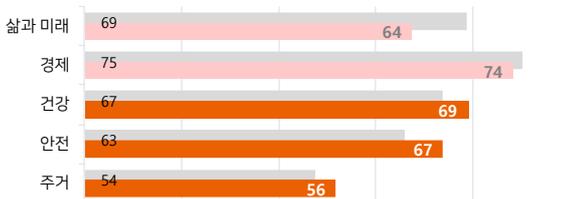
Kstat Point

- ☑ 남성과 여성은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불안감을 보이는 영역이 서로 다름
 - : 남성은 전 연령대에 걸쳐 '경제' 영역에서 가장 큰 불안감을 보임
 - : 여성의 경우 연령대별로 다른데, 18~20대는 '경제', 30대 '건강', 40대 '삶과 미래', 50대 '경제', 60대 이상 '건강' 영역에서 불안감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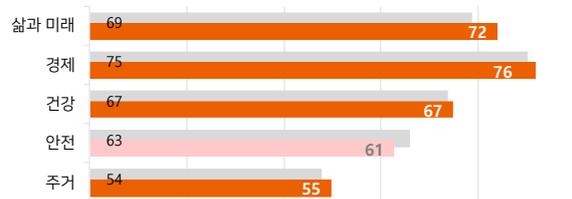
□ 불안감 높은 지역, 경기·인천과 TK

- 불안 정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과 TK 지역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회색막대와 좌측 숫자는 국민전체이고, 이보다 낮으면 옅은 주황색 막대, 높으면 짙은 주황색 막대임
- 경기·인천과 TK 모두 안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국민 전체보다 더 큰 불안감을 보임
- 그 밖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은 건강 영역, 충청은 경제 영역, 호남은 주거 영역, PK는 안전 영역의 불안도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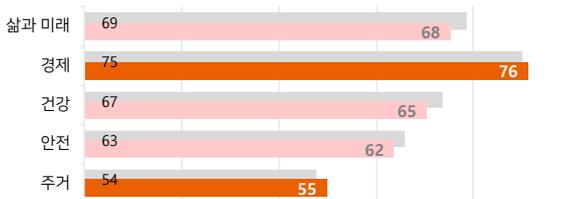
서울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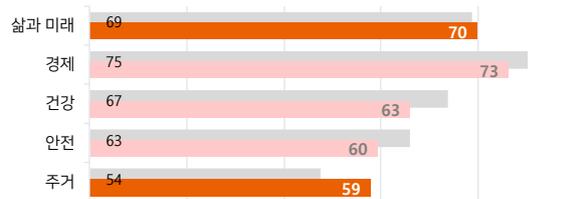
경기·인천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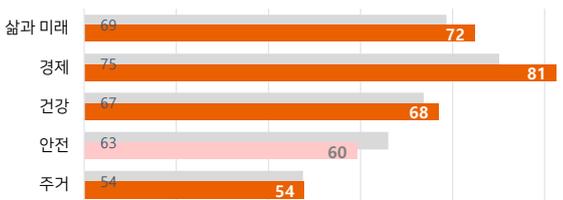
충청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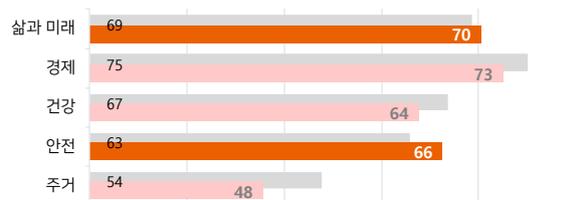
호남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TK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PK 지역 불안 정도 (자료:케이스탯,2022.11.06.조사,단위:%)



Kstat Point

- ☑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범죄, 교통사고, 화재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한 불안감이 작년 11월, 올해 5월과 비교해 증가한 점이 눈에 띈
 : 작년 11월-올해 5월 대비 이번 달 안전 영역 관련 불안감 증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9%p/+7%p, 경기·인천 +7%p/+1%p, 충청 +12%p/+6%p, 호남 -3%p/-4%p, TK +1%p/+14%p, PK +5%p/+12%p로 대체로 큰 상승 폭을 보임
- ☑ 전 지역 중 특히 서울과 제2의 수도 부산이 속한 PK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각 67%, 66%로 가장 높았음
- ☑ 이는 앞서 이번 달 들어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대폭 상승한 배경으로 꼽은 '대형 사건·사고의 잇따른 발생'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특히 서울, 부산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불안감이 두드러짐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63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63호는 『국민이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MBTI 분석』이라는 주제로 11월 24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